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THE NIX

가제 : 닉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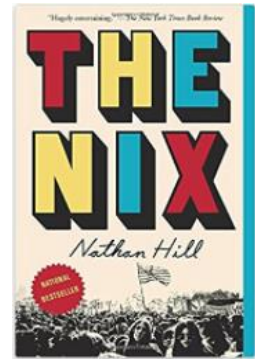
저자 : Nathan Hill

출판사: Vintage

발행일: 2017년 5월 2일

분량 : 640 페이지

장르 : 영미소설일반/역사소설



*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덴마크 등 16개국에 판매된 베스트셀러 / 1쇄 10만부

* 2016년 전미 도서비평가협회상 최종 후보, 아마존 최우수 도서 10권 중 4위, 「워싱턴 포스트」 선정 ‘주목할 만한 책’, 「가디언」 선정 최우수 도서 등

* “훌륭한 데뷔 소설. 정말로 한 방 맞은 느낌”- 존 그리샴

어렸을 때의 기억을 가족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철썩 같이 믿었던 일들이 전혀 사실과 달라서 뒤늦게 충격을 받을 때가 있다. 직업은 작가이고 대학 강사지만 온라인 게임에 더 열과 성을 쏟으며 대충 살아가던 새뮤얼에게는 그 충격이 훨씬 더 갑작스럽고 강렬하게 시작된다. 정치인을 공격한 미치광이 히피로 저녁 뉴스를 장식한 여성이 어릴 때 집을 나간 엄마로 드러나고, 언론이 신나서 전하는 엄마의 과거와 자신이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 당혹스러워진 새뮤얼은 직접 나서서 진실을 가려보기로 한다. 오랜 세월이 지나 마침내 다시 마주한 두 사람, 알쏭달쏭한 엄마의 정체를 파헤치는 새뮤얼의 이야기에는 무력 충돌이 벌어진 미국의 대공황 시대와 1968년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가 지배한 2011년까지, 급속히 바뀐 세대와 혼돈 속에서 분열되고 부딪힌 사람들의 아픈 사연이 담겨 있다. 유머와 위트, 폭소를 자아내는 다양한 풍자가 가득해서 상당한 분량임에도 지루함을 느낄 틈 없는 소설이다.

뉴스며 신문마다 ‘패커 공격자’라는 이름이 떠들썩하게 장식한 건 2011년, 새뮤얼 안데르센 앤더슨이 대학 강사로 일하던 때였다. 학교에서 서양 고전문학을 가르치는 그는 롤 플레잉 게임 ‘엘스케이프’에 푹 빠져 학교에서도 과감하게 게임을 하는 철부지 강사다. 언론이 한 시민의 과격한 행동에 유난히 주목한 이유는, 그 돌을 맞은 사람이 우익 지지자들을 단번에 결집시키며 새로운 보수계 대표적 정치인으로 떠오른 시카고 주지사, 셸든 패커였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보조 교사라는 그 60대 여성 시민은 돌만 던진 것이 아니라 ‘이 돼지 같은 놈’이라는 말도 아주 크게 외

쳤다. 놀랍게도 그녀의 이름은 페이 안데르센 앤더슨. 독특한 성 탓에 절대 동명이인이라고 할 수 없는, 새뮤얼의 어머니였다.

제대로 된 뉴스거리를 잡은 언론은 페이의 신상을 털기 시작했다. 현재 직업뿐만 아니라 급진적인 정치색을 공공연히 드러낸 히피에 ‘어두운 과거’가 있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급기야 새뮤얼을 가장 충격에 빠뜨린 사진이 공개된다. 1968년, 존슨 대통령의 분신이라 여겨졌던 험프리 부통령 대신 케네디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기 위한 민주당원들의 치열한 갈등이 베트남 전쟁 반대를 외치던 시민, 경찰과의 무력 충돌로 번진 아수라장 속에 뚜렷하게 찍힌 페이의 모습이었다. 새뮤얼은 어머니가 집을 나간 1988년 이후로 뉴스에 등장하기 전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그건 자신이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과 너무 달랐다. 노르웨이 출신인 아버지와 어머니는 고등학교 졸업 파티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고, 결혼에 골인해서 가정을 꾸린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늘 생각했기 때문이다. 새뮤얼은 엄마가 집을 나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함께 했던 날들의 기억을 되새기며 이 복잡한 기억을 직접 바로 잡기로 마음 먹는다. 마침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작가이기도 한 그는 소설을 내기로 출판사와 계약을 하고 이미 선금을 받았지만 마감을 훌쩍 넘기고도 원고를 넘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얼른 뭐라도 쓰라는 압박에서도 벗어날 겸, 새뮤얼은 세간의 열띤 화제가 된 어머니를 직접 만나 인터뷰하고, 어떤 사람인지 속속들이 파헤쳐서 일종의 전기 형식으로 써서, 하나도 숨김없이 전부 까발리기로 결심한다. 과연 어머니와의 수십 년 만에 재회하고도, 감정이 격해지지 않고 그 가열찬 결심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 어머니가 정말로 자신의 진짜 삶을 털어놓는다면,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제 이야기는 1968년과 1988년, 그리고 2011년을 오가며 새뮤얼과 페이의 새로운 모습, 뜻밖의 기억과 옛 기억을 조금씩 보여준다.

엄마는 왜 아버지와 자신을 버려야 했을까?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 지금까지 어디서 뭘 하고 살았으며, 어쩌다 주지사에게 돌 던지는 사람이 됐을까? 작가는 새뮤얼이 가르치는 학생이 학과에서는 우등생으로 꼽히지만 분명 다른 사람의 과제를 베껴서 ‘완벽한’ 글로 만들어온 사실을 지적하다가 그 학생과 연쟁을 벌이는 장면 등을 통해, 사실 페이와 새뮤얼은 참 많이 닮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불어 싸구려에 열광하면서도 냉소적인 사람들, 그러면서 아주 도덕적인 척하는 모순된 태도를 새뮤얼이 만나는 인물들을 통해 위트 있게 꼬집고, 자기 자신의 감정도 어떻게 표현할 줄 몰라서 스마트폰 앱에 미리 저장된 이모티콘이나 문장으로만 기분을 전하는 현 세대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주장하던 과거 세대의 다소 과격한 모습과 선명하게 대조한다. 그 많은 위선과 탐욕, 중독, 복수심과 분노에 잠식된 사람들의 모습을 역사적 사실과 통찰력 있는 분석을 담아 흥미롭게 풀어낸 통쾌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네이션 힐(Nathan Hill)은 아이오와 리뷰, AGNI 등 여러 문학 잡지를 통해 단편소설을 발표해 온 작가다.

제목 : HOW IT HAPPENED

가제 : 살인의 공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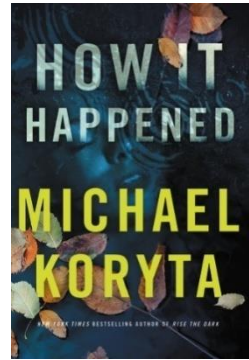
저자 : Michael Koryta

출판사: Little, Brown and Company

발행일: 2018년 5월 15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범죄스릴러/미스터리소설



★ 브라질, 크로아티아, 체코,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등 17개국 판매

★ “오점 하나 찾을 수 없는 예측 불가 스토리가 작가 특유의 음울한 분위기가 가미된 소설. 범죄 소설이 이보다 더 재미 있을 수는 없다.”- 「커커스 리뷰」

메인 주의 시골 작은 마을, 포트 호프 주민 전체가 ‘악쟁이’에 되는데로 사는 거짓말쟁이로 일찌감치 낙인 찍힌 킴벌리 크로포는 유난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8월 마지막 날, 친구와 함께 한 남자를 따라 나섰다가 졸지에 살인 사건의 공범이 된다. 문제는 그 일을 경찰에 전부 다 털어놓았지만 사람들이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 킴벌리가 지목한 살인자가 집을 리모델링해서 팔고 부유층의 여름 별장을 관리하는 남자, 사람들 사이에서 착실하게 일하는 사업가로 알려진 매티어스 버크라는 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FBI 요원 롬 베렛은 어릴 적 할아버지가 살던 마을이라 자신도 여러 번 여름을 보냈던 포트 호프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수사를 자원하고, 스스로를 살인 공모자라고 밝힌 킴벌리와 만난다. 서른 넷, 적지 않은 나이지만 FBI 일을 뒤늦게 시작하여 그렇다 할 경력은커녕 살인사건은 한 번도 직접 수사해본 적 없는 그에게 좋은 기회가 도리 것 같았다. 그러나 롬은 시작부터 큰 벽에 부딪힌다. 경력은 부족해도 거짓과 진실을 분석하는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 받은 그는 킴벌리의 증언이 전부 사실임을 직감적으로 알아챘지만 지역 경찰은 그녀의 평소 행실을 거론하며 믿으려 하지 않았다. 대체 어떤 멍청이가 자신을 살인 공범이라고 거짓말 한단 말인가? 하지만 롬의 또렷한 직감 외에는 아무런 물증이 나오지 않고, 사건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주류 상점에서 일하는 킴벌리는 사건이 벌어진 그 날, 여섯 시 퇴근 시간에 맞춰 친구 캐스가 찾아오면 같이 놀기로 약속했다. 딱히 할 일은 없었지만 금요일이고 해변가 관광지인 마을을 내내 소란스럽게 하던 외지인들이 거의 다 돌아가고 오랜만에 조용해진 막바지 여름의 분위기를 그냥 즐길 생각이었다. 그런데 퇴근하려면 아직 30분 정도 남았을 때 매티어스 버크가 가게에 들어선다. 워낙 좁은 마을이다 보니 서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몇 살이고 어떤 사람인지 대충 다 아는 사이였다. 킴벌리는 매티어스가 직업 특성상 여름에는 하루 20시간씩 일하고 겨울이 되어서야 자주 술을 사러 들른다는 걸 알았기에 그 날 가게에 온 것도 뜻밖이라고 생각했지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가 퇴근하고 같이 술이나 한 잔 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놀란 킴벌리는 친구와 약속이 있다고 말했지만, 매티어스는 자신이 관리하는 별장들

중에 주인이 1년에 딱 2주만 쓰는 호화로운 저택이 하나 있다면서, 친구도 같이 가서 술도 마시고 수영도 하자고 했다. 달리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한 김벌리는 그러기로 했다. 캐스까지 셋이서 보드카와 맥주를 마시고 호숫가로 수영을 하러 갈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즐거웠다.

매티어스가 이상한 낌새를 드러내기 시작한 건, 헤로인에 취해 캐스와 수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부터였다. 그 해 여름, 유독 불법 마약 때문에 갑자기 죽은 사람들이 많아 약을 끊기로 결심한 김벌리는 돌이 오뎀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헤로인을 맞았는데, 약에 취해 잠시 잠든 사이 돌아온 매티어스가 길길이 화를 내기 시작했다. 차 키를 잃어버렸다고 고향 치며 욕을 하더니, 운전석에 그대로 꽂혀 있는 열쇠를 발견하고 캐스가 비웃자 칼을 들이댔다. 나사가 빠진 사람처럼 미친 듯이 화를 내는 그가 두려웠지만 집까지 걸어갈 수는 없어서 다시 그 차에 오른 김벌리와 캐스는 좁은 시골길을 바퀴가 빠질 것 같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내달리던 매티어스의 트럭 안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결국 바닷가 근처에서, 트럭은 도로변에 서 있던 여자를 들이 받았다. 차에 치인 여자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마을 부호의 딸, 잭키라는 사실을 알아채고 기겁한 김벌리는 조용히 차에서 내린 매티어스의 행동에 더욱 경악했다. 잭키와 함께 있다가 사고 장면을 목격한 남자친구를 쇠파이프로 내리쳐 단번에 죽인 것이다. 그는 덜덜 떠는 캐스와 잭키에게 시체를 호수에다 갖다 버려야 하니 도우라고 강요했다. 칼을 빼 들고 달려드는 그의 살기 어린 눈빛에 그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벌리의 주장이었다.

롭에게는 더 의심할 것도 없이 모두 명백한 사실로 들리는 이야기였지만, 두 가지가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시신을 함께 옮겼다는 캐스가 3일 뒤에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한 것, 그리고 김벌리가 지목한 호수 곳곳을 잠수부가 아무리 뒤져도 시체가 단 한 구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역 경찰은 김벌리가 약에 취해 아무 말이나 막 해댄 것이라고 치부하지만 롭은 계속해서 증언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벌리의 이야기에서 느껴지는 진실성과 더불어 롭이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또 있었다. 어릴 때 이 마을에서 지내던 당시에 본 매티어스의 이상한 행동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왜 그는 자기 트럭이 있는데도 문제의 그 날, 굳이 남의 트럭을 빌려서 김벌리가 일하던 가게로 갔을까? 왜 사고 현장 바로 앞에 파도가 휘몰아치는 바다가 있는데 시신을 차에 싣고 잔잔한 호수로 가서 투기했을까? 롭의 끈질긴 수사는 평온하게만 보이던 바닷가 마을에 구석구석 숨겨져 있던 탐욕과 음흉한 음모의 중심을 조금씩 파고들기 시작한다. 시종일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흥미진진한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마이클 코리타(Michael Koryta)는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범죄심리학을 공부하고 사립탐정, 기자로 활동했다. 어린 시절부터 글을 쓰기 시작해 뛰어난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가로 각광을 받고 있다. 『Tonight I Said Goodbye』로 탐정소설 최우수 신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에도 『Rise the Dark』, 『Those Who Wish Me Dead』 등 다양한 작품들로 LA 타임스 도서상을 수상하고 에드거 상, 셰이머스 상, 베리 상 후보에 올랐다.

제목 : WISH ME HOME
가제 : 헤밍웨이의 집
저자 : Kay Bratt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2017년3월 21일
분량 : 300 페이지
장르 : 영미소설일반



★ 체크 판권 계약 체결

- ★ “작가의 특징이 고스란히 느껴진 소설.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와 사랑스러운 인물들, 페이지를 계속 넘기게 하는 줄거리에 삶의 고통을 그대로 드러내고, 친절하고 선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작가의 노력이 담겨 있다.”- 베스트셀러 『Hello Love』의 작가 카렌 맥케스천
- ★ “마음 속 가장 깊은 소망을 이루려는 한 여성의 이야기로, 작가는 위탁 가정 시스템의 어두운 면을 현실적으로 조명하고 동시에 희망은 늘 존재한다는 것, 집과 가족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 시킨다.”- 베스트셀러 『Closer Home』의 작가 캐리 앤 킹

뚜렷한 목적지도 없이 무작정 길 위로 나섰을 때, 카라를 가장 힘들게 한 건 30년 동안 쌓인 어두운 기억들과 외로움이었다. 당장 갈 곳이 없고 얼마 없던 돈도 거의 바닥이 날 지경일 때 갑자기 따라오기 시작한 개 한 마리를 여행 친구로 받아들인 것도 그래서였다. 차들이 뽕뽕 달리는 주간 고속도로변에 개가 혼자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이상한 일인데, 그 개는 카라와 처음 눈이 마주친 순간부터 마음을 정했다는 듯 계속 따라왔다. 지금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노숙자 신세에 다른 생명을 책임질 수는 없기에 카라는 애써 무시하고 더 빠르게 걸었지만 소용없었다. 커다란 눈망울로 다 이해한다고 이야기하는 듯한 그 개는 발까지 절고 있었다. 한참을 갈등하던 카라는 문득 몇 시간째 고민하던 목적지를 떠올리고, 갈 곳이 정해지자마자 개와 함께 가기로 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집, 플로리다 주 키 웨스트로 무조건 가볼 생각이었다. ‘헤밍웨이’, 줄여서 ‘헤미’라고 부르기로 한 그 네 발 달린 친구와 함께.

헤미는 모습부터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아픈 기억을 불러 일으켰다. 카라와 몇 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 여동생, 하나를 혼자 키우던 엄마가 일곱 살 때 세상을 떠나고 처음으로 위탁 가정에 맡겨졌을 때, 그 집에도 꼭 헤미처럼 생긴 개가 있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카라와 하나는 둘을 키우기로 한 아줌마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자신들을 받아줬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다. 이웃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나 교회에 갈 때면 쌍둥이를 예쁘게 꾸며서 자랑스럽게 앞에 내세우고 자랑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투명인간처럼 대하던 그 양어머니는 때리거나 욕을 하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직접 낳은 아이들과 확연히 다른 태도로 카라와 하나를 대했다. 그 집에서 유일하게 둘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준 존재가 바로 리노라는 애완견이었다. 카라와 하나는 리노에게 모든 정성을 쏟으며 의지했고, 곧 리노는 집안 식구들 중 누구보다 자매를 따라다니며 보호자 역할을 자처했다. 하지만

양어머니의 아이들은 그런 관계를 못마땅해했고, 애꿎은 리노는 자매와 가까이하지 못하도록 바깥에 쫓겨나가거나 혼이 나기 일쑤였다. 결국 카라와 하나는 리노를 위해, 리노가 자신들 때문에 쫓겨나지 않도록 개를 모른 척하기로 했다. 뒤돌아 서서 울음을 터뜨리면서도 리노를 차갑게 대하고 못 본척했던 그 기억을 수십 년이 지나, 낯선 길에서 만난 헤미가 모두 일깨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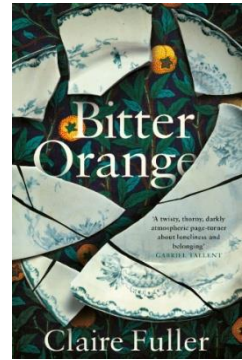
이야기는 카라와 헤미가 조지아 주에서 플로리다 키 웨스트까지 걸어서 여행 아닌 여행을 이어가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순간순간 카라의 머릿속을 헤집고 들어오는 동생 하나, 그리고 자매의 고달팠던 지난 삶의 기억들로 이어진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위탁을 자처한 집들을 전전해야 했던 두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보살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드문지 직접 체험해야 했다. 물도 전기도 끊겨서 씻을 수도 없는 집에서 수집품을 모으듯 고아들을 키우던 집부터 끼니마다 먹을 것을 걱정해야 했던 집까지, 아무 애정 없이 자신들을 대하는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살면서 자매는 지칠 대로 지쳐버렸다. 그 고통은 국가 시스템 전체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져서, 마침내 위탁 가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인이 되었을 때 한시바빠 그 시스템에서도 이름을 지워버리기로 한 결정으로 이어졌다. 그냥 몇 년 더 도움을 받았다면 작은 대학이라도 다니고 등록금도 지원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는 너무 뒤늦게 찾아왔다. 카라와 하나는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거나 모텔 청소부로 일하는 등 대학 졸업장 없이 할 수 있는 허드렛일을 전전하며 방값을 벌어야 했다. 당연히 조금도 나아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적 형편보다 더욱 카라를 괴롭힌 것은 날이 갈수록 무너져가는 하나였다. 삶을 지옥으로 만들 것을 뻔히 알고도 끊지 못하는 남자와의 관계들, 그 안에서 반복해서 벌어지는 사고와 울부짖음을 보면서도 카라는 벗어날 수가 없었다. 이미 어릴 때부터 하나를 돌보고 책임져야 한다고, 스스로 짊어진 책임감의 무게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너무나 오랜 세월을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온 카라는 헤미와 뚜벅뚜벅 목적지를 향해 가면서 가슴 속에 수천 겹 쌓인 하나와의 기억을 떠올린다. 위탁 부모부터 시작해 푼돈 밖에 벌지 못한 일터에서 만난 사람들이 하나 같이 삶을 고달프게 했기에 어쩌다 잠시 하룻밤 머물게 해 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겹부터 집어 먹던 카라는 뜻밖에도 마음 따뜻한 사람들과 만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응원과 위로를 받으면서 난생 처음으로 사람에 대한 반감이 누그러지는 것을 느낀다. 계획 없이 시작된 카라의 여행이 왜 시작됐는지, 하나와는 왜 헤어져야만 했는지 그 이유도 조금씩 드러난다. 반복된 비극을 겪으며 우울증의 덫에 걸려버린 하나가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고, 죽겠다고 발버둥치는 동생을 매번 살려내고, 살아난 하나가 사랑인지 집착인지 모를 관계에 빠지면서 총기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카라가 길을 떠난 이유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도주였다는 비밀도 드러난다. 자매는 이 꼬여버린 인생에서 벗어나 어릴 때부터 빌었던 유일한 소망,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집을 찾을 수 있을까? 죽어야 끝날 것 같은 절망 속에도 반드시 희망은 있다고 가만히 이야기해주는 따뜻하고 인상적인 소설이다.

<저자 소개>

소설가인 케이 브랫(Kay Bratt)은 아동서 두 권과 베스트셀러 『The Tales of the Scavenger's Daughters』 시리즈 등을 발표했다.

제목 : BITTER ORANGE
가제 : 프란시스의 저택
저자 : Claire Fuller
출판사: Fig Tree
발행일: 2018년 8월 2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심리스릴러소설



- * 캐나다, 독일, 그리스, 프랑스 판권 계약 체결
- * “반전과 골치 아픈 사건들, 음울한 분위기 속에서 고독과 소속감을 이야기하는 흡입력 있는 소설”- 『MY ABSOLUTE DARLING』의 작가 가브리엘 텔런트
- * “J.L. 카의 『A Month In The Country』와 대프니 듀모리에의 『Jamaica Inn』, 셸리 잭슨의 『We Have Always Lived in the Castle』 등 개인적으로 무척 사랑하는 여러 소설을 떠올리게 한 작품”- 『ELIZABETH IS MISSING』의 작가 엠마 힐리

태어나 단 한 번도 런던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40대 여성 프란시스 켈리코 앞으로 편지가 한 통 도착한다. 온실과 커다란 정원이 딸린 신고전주의 양식의 대저택, ‘린튼’의 소유주가 보낸 편지였다. 리버만이라는 이름의 발신자는 얼마 전 건축 분야 학술지에 실린 프란시스의 논문을 읽은 것이 분명해 보였다. 다리와 정원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건축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니, 린튼에서 한동안 머물면서 평가를 해 달라는 요청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정말로 세상에 혼자 남기만 하면 모든 것이 바뀔 줄 알았던 기대는 모두 꿈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프란시스는 이 요청이야말로 새 삶을 시작할 기회가 되리라 확신했다. 더 고민하지도 않고 리버만의 요청을 수락한 프란시스는 기차와 버스를 번갈아 타며 마침내 린튼 저택에 도착한다. 그런데 그 낡은 건물은 관리되지 않아 어수선했던 정원과 먼지가 뿌옇게 내려 앉은 방들, 그리고 집주인이 이야기한 호숫가의 다리와 정원의 조각 작품들 말고도 프란시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대상이 이미 와 있었다. 하얀 피부와 대조되는 까만 머리카락에 기다란 다리가 매혹적인 카라,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피터였다.

집주인이 집안의 상태를 점검하고 재고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고용한 사람이 바로 피터였고, 카라는 그의 아내였다. 족히 열 살은 더 차이가 나는 것 같은 부부는 프란시스가 도착한 첫 날부터 어딘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겼다. 햇살이 환한 오후에는 정원을 뛰어다니고 깔깔대며 장난을 치더니, 저녁이 되어 시골 특유의 고요한 침묵이 공기를 에워싸고 싸늘한 밤공기가 내려오기 시작하자 다투고 던지고 부서지는 소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프란시스가 묵기로 한 곳은 린튼 저택의 지붕 바로 아래, 다락과 연결된 곳이고 두 사람은 바로 아래층에 머물고 있었기에 곧이어 흐느끼는 카라의 울음 소리까지 프란시스는 전부 다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곳, 은밀하게 두 사람의 생활을 지켜볼 수 있는 장소가 우연히 프란시스의 눈에 들어온다. 욕실 바닥에 누군가 몰래

설치해둔 작은 망원경에 눈을 갖다 대면, 아래층의 넓은 욕실이 한 눈에 들어왔다.

청소가 안 된 채로 방치된 욕실을 열심히 청소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그 망원경은, 귀걸이가 떨어져 굴러가지만 앉았어도 절대 찾지 못했을 것이다. 돌아가신 엄마가 남겨준 몇 안 되는 유산인 귀걸이를 어떻게든 찾으려고 바닥 곳곳을 뒤지던 프란시스는 바닥 마루가 조금만 힘을 줘도 떨어져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잃어버린 귀걸이 한 짝과 함께 망원경을 발견한다. 처음 시야에 피터의 모습이 들어왔을 때만 해도 당장 발각될 것만 같아 소스라치게 놀랐던 프란시스는 서서히, 아무도 모르게 돌의 생활을 훑쳐보는 일에 빠져들기 시작한다. 10년을 앓다가 돌아가신 엄마를 혼자서 간호하면서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처럼, 공부 외에는 아무 것도 해본 적이 없는 프란시스에게 두 사람은 신선한 자극이자 난생 처음으로 먼저 다가와 친해지고 싶다고 이야기해준 고마운 사람들이었다. 두 사람은 스스럼없이 프란시스를 식사에 초대하고, 함께 산책하고 대화를 나누려고 했고 그들과 함께 맛있는 것을 즐기고 집주인은 있는 줄도 모를 귀한 와인을 찾아내서 마시면서 프란시스는 짜릿한 행복을 느낀다. 그러나 세 사람의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점점 많아진다. 첫날 소란스럽게 다룰 때 이미 드러난 카라와 피터의 복잡미묘한 관계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꼬였는지, 프란시스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진실들이 예고 없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카라는 프란시스에게, 피터가 유부남일 때 처음 만났다고 털어 놓는다. 아일랜드 출신인 두 사람은 남들의 시선을 피해 외국에서 편하게 살기로 하고, 태어나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아기를 데리고 떠났다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카라는 아기에게 대해 이상한 소리를 했다. 자신은 처녀이고 성모 마리아처럼 ‘어쩌다 그냥’ 임신을 했다는 것이다. 돈이 없어서 배를 타고 스코틀랜드로 가던 길에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아기가 죽었고 그 이후로 죽어야 속죄한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자살을 시도하게 됐다는 고백도 이어졌다. 프란시스는 앞뒤가 연결되지 않는 카라의 이야기가 의아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받아들였다. 진위를 따지고 논리적으로 해석하기엔 소중한 친구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컸다.

무더운 여름 한 철을 주인 없는 저택에서 여유롭게 보내던 세 사람의 시간은 갈수록 허무맹랑해지는 카라의 이상한 이야기들로 인해 묘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피터로부터 카라와 완전히 다른 버전의 진실을 듣게 된 프란시스는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에 빠지고 동시에 피터의 말대로 카라가 ‘재미로’ 거짓말을 해온 것이라면 백치처럼 속아 넘어간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새파랗게 젊은 여자가 자신이 마흔이 다 되도록 세상물정 아무 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꿰뚫어보고 놀랐다면? 하지만 프란시스 자신도 친구라는 사람들의 욕실이나 몰래 들여다보면서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쳐왔으니 어디까지 떳떳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인간의 게걸스러운 욕망과 거짓말, 폭력을 묘한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벗겨내는 기발한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클레어 풀러(Claire Fuller)는 윈체스터 예술학교에서 조각을 공부하고 같은 대학에서 문예창작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마케팅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마흔 살 때 글을 쓰기 시작했다. 데뷔 소설 『Our Endless Numbered Days』로 데스몬드 엘리엇 상을 수상했다.

추가 업데이트

제목 : STAR OF THE NORTH

가제 : 북쪽의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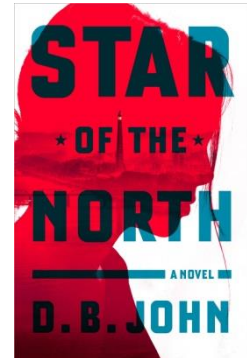
저자 : David John

출판사: Crown

발행일: 2018년 5월 22일

분량 : 416페이지

장르 : 스릴러소설



★ 영국, 독일 pre-empt 계약 체결

★ 뉴욕타임스 전자책 베스트셀러에 오른 탈북 여성의 이야기 『THE GIRL WITH SEVEN NAMES』 작가 북한을 배경으로 쓴 두 번째 스릴러

1998년 여름, 동글동글 작은 색색의 돌들이 가득한 백령도 콩돌 해변에서 두 남녀가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대학교 1학년생인 진화, 미국에서 나고 자라 한국에 유학 온 수민은 인적 없는 해변에서 사진도 찍고 바다를 바라보며 데이트를 즐겼다. 진화가 나무 장작을 모아 모닥불을 피우는 사이, 수민은 가무잡잡한 진화의 모습을 열심히 카메라에 담았다. 오징어를 구워 먹고 진화가 가져온 기타로 파도소리를 반주 삼아 노래를 부르던 그때, 바다에 무언가가 나타났다. 진화가 기타를 내팽개치는 것을 보고 수민은 의아해하며 그의 시선이 쏠린 쪽을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잔잔한 파도와 맞닿은 해변과 100미터 가량 떨어진 바다에 새하얀 거품이 일고 물살이 솟구치고 있었다. 수민은 본능적으로 달아나야 한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러나 두 눈을 멀게 만드는 강렬한 주황색 조명이 두 사람에게 떨어졌다. 수민과 진화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버렸다.

며칠 간 백령도 일대를 수색한 인천 경찰은 두 사람이 수영을 하다가 익사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수민과 진화가 백령도로 들어간 후 백령도에서 외부로 나온 여객선 중 어느 곳에도 두 사람이 탑승한 기록이 없다는 점, 북한과 가까운 지역 특성상 지정된 여객선과 선박 외에는 배가 운항할 수 없으므로 다른 배를 타고 섬을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그리고 동네 주민이 콩돌 해변에 고스란히 남아 있던 두 사람의 소지품을 발견한 점으로 실종자의 신원이 확인된 점, 그리고 며칠간 이어진 수색에서 아무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익사로 결론 지은 이유였다. 결국 헬리콥터까지 동원된 수색은 종료되고, 두 젊은 청춘은 죽은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로부터 10년도 더 지난 2010년, 수민의 쌍둥이 언니인 제나는 여전히 수민을 잊지 못한 채 하루하루 괴로운 나날을 보내며 살았다.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유능한 학자로 살아가는 그녀는 동생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한국 경찰의 결론을 도무지 받아들이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상한 것 한 가지, CIA가 제나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다. 일상을 지켜볼 뿐만 아니라 제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완전히 꿰뚫고 있었다. 그저 평범한 학자인 여성에게 왜 중앙정보부가 관심을 보일까? 그들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

한편, 북한에서는 압록강,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쪽으로 중국과 접한 양강도에서 한 60대 여성이 특별한 장사로 재산을 불리고 있었다. 해외 원조단체가 날려보낸 거대한 풍선이 밭에 떨어지면 그 속에 담긴 온갖 물품을 모두 주워다가 근처 마을에서 판매하는 것이다. 흔히 볼 수 없는 음식과 신기한 물건들은 인기 만점이었고 곧 장사는 점점 확대되기 시작했다. 가난과 먹을 것이 부족해 사람이 죽어나가는 고된 삶에 지친 사람들은 체제에 대한 불만을 하나 둘 터뜨리기 시작하고, 그저 물건 파는 장사꾼이던 여성은 서서히 끓어오르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변모해 간다.

같은 시기, 북한 고위급 외교관인 조상호에게도 일생일대 위기가 찾아온다. 형이 내각에서 상당히 높은 직위로 승진할 기회를 얻은 것까지는 좋았으나 당이 그렇게 호락호락 자리를 내어줄 리는 없었다. 예상대로 최고지도자 직속 정보기관이자 비밀경찰인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두 형제의 집안을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하나라도 흠이 발견될 경우 형이 꿈꾸던 그 자리는 그대로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동한 두 사람이 힘겹게 쌓아온 경력이 어떤 위기에 처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문제는 부모였다. 아기일 때 버려진 두 형제를 키워준 북한의 유력한 명문집안 양부모가 아닌, 한 번도 본 적 없는 친부모. 그들이 어떤 존재로 드러나 두 사람의 앞길을 가로막을지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여지없이 사실로 드러나고, 조상호와 아내, 아들까지 거대한 위협에 휩싸인다.

10여 년 전 사라진 두 남녀, 고통 받는 인민의 대변인이 된 60대 여성, 그리고 기억도 나지 않는 가족의 과거사로 인해 위기에 처한 고위급 외교관, 이들의 운명은 한 점에서 만나고, 이야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절정으로 치달는다. 북한을 다녀온 서구 작가의 눈으로 바라본 북한의 풍경, 알려지지 않은 북한의 절망적인 실상, 그리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사건들이 엉키며 흡입력을 발휘하는 흥미진진한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데이빗 존(David John)은 북한을 여행해본 몇 안 되는 서구인 중 한 명이다. 탈북 여성의 이야기를 다룬 전작 『THE GIRL WITH SEVEN NAMES』 (HarperCollins, 2015)는 뉴욕타임스 전자책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그 밖에도 역사 스릴러 『FLIGHT FROM BERLIN』 (HarperCollins US, 2012) 등을 발표했다.

Praise for
STAR OF THE NORTH
DAVID JOHN

"Extraordinary ... smart, sophisticated, suspenseful - and important. If you try one new thing this year, make it *Star of the North*." - Lee Child

"From the very first page of this riveting thriller, I knew that D.B. John was a talented writer, and that *Star of the North* wasn't like any other book I've read before. It's not only brilliantly plotted, with espionage, secrecy, and obsession, it's a story about survivors, told by three complex and fully realized characters, each battling their own personal demons. John portrays the hardships of North Korea and its people with painful accuracy while never losing sight of their humanity. This one is definitely a star." – Chevy Stevens, *New York Times* bestselling author of *Never Let You Go* and *Still Missing*

"A superior thriller, deftly plotted and richly human, steeped in the intrigue, culture and family of a closed regime, both terrifying and upliftingly emotional. It delivers on all fronts." – Andrew Gross, *New York Times* bestselling author of *The One Man*

"This one brims with marvelous characters and delivers heart-in-your throat action. Every page brims with reality, intensity, and passion, all unraveling at a perfect pace. Enjoy." - Steve Berry, *New York Times* Bestselling author of *The Lost Order*

"As gripping as it is shocking, this is an adrenalin-rush of a thriller that is also a devastating portrayal of a brutal regime. I couldn't pull myself away." – Sabine Durant, author of *Under Your Skin*

"D.B. John delivers the timeliest thriller of 2018. An intricately constructed puzzle box of spies and tradecraft that plunges the reader on a cyanide-laced sprint through North Korea. The real star though is D.B. John's crackling prose, which breathes humanity and dignity into the most repressive nation on earth. The last hundred pages read like ten, I had to fight the urge to flip to the end." - Matthew Fitzsimmons, author of *The Short Drop*

"Tense and compelling" - James Swallow, author of *Nomad* and *Exile*

추가 업데이트

제목 : THE SMILING MAN
가제 : 죽은 자의 미소
저자 : Joseph Knox
출판사: Doubleday
발행일: 2018년 3월 8일
분량 : 328 페이지
장르 : 소설/ 범죄 스릴러



- * 「선데이 타임스」 소설 부문 베스트셀러 10위권 진입, 「옵저버」 선정 2017년 소설 부문 뉴페이스로 화제를 모은 데뷔작 『SIRENS』에 이은 시리즈 두 번째 소설
- * 1권 『SIRENS』과 함께 10개 출판사가 참여한 치열한 경매로 출판 계약 체결, 두 권 모두 체코,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등 15개국과 판권 계약 체결, 내년 봄 미국 출간 예정

올 봄 영국에서 출간된 ‘에이든 웨이츠 형사(DC Aidan Waits)’ 시리즈 첫 번째 이야기 『사이렌(SIRENS)』은 유능한 형사였지만 불명예스러운 일로 야간 순찰을 돌며 경찰 생활을 겨우 이어가는 주인공 에이든 웨이츠와 정치, 마약, 살인과 납치가 뒤엉킨 스토리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메트로(Metro)」지가 “마음을 잡아 끄는 새로운 재능”을 지녔다고 찬사를 보낸 작가는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로 이 소설을 완성했다. 1권이 자인 카버라는 수수께끼 가득한 범죄자와 그가 만든 ‘사이렌’이라는 조직에 발이 묶인 정치인의 딸 이사벨 로시터를 구하기 위한 에이든 웨이츠의 활약을 그렸다면 2권에서는 폐업한 호텔 방 안에서 시체가 발견되면서 시작된 돈과 권력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파헤치는 주인공의 끈질긴 수사 과정을 따라간다. 전편과 마찬가지로, 증거품으로 압수된 마약을 빼돌렸던 에이든 웨이츠의 복잡한 과거사와 함께 고집스러운 전형적인 형사의 모습과 더불어 냉소적인 태도와 괴짜 같은 구석이 있는 그의 심리를 가까이서 들여다보듯 묘사하여 독자들에게 정체 모를 살인자를 추적하는 그의 바로 옆에서 함께 수사를 진행하는 듯한 느낌을 안겨 준다.

여전히 야간 순찰을 돌며 만취해 싸움을 벌인 사람들이나 방거리에서 벌어지는 자질구레한 사건을 처리하며 살아가는 에이든 웨이츠는 오로지 현재에만 집중하려 노력한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과거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미래도 신경 쓰지 않고 눈 앞에서 벌어지는 일, 지금 해야 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그의 곁에는 전혀 다른 목표로 같은 일을 하는 동료 형사 피터 수티가 있다. ‘인간애’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인물인 피터는 고되고 아무 의미도 없는 야간 순찰을 진심으로 즐겁게 여긴다. 방황하는 십대 청소년들이며 온갖 인생사에 찌들어 괴로워하다 핫김에 사고를 친 사람들이 울면서, 화내면서, 소리지르면서 하는 이야기들을 다 귀 기울여 들어주고 최대한 나서서 처리해주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 대수롭지 않은 사건은 빨리 마무리하고 넘어가려는 에

이든과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다. 어느 때와 같이 서로 비꼬고 날을 세우며 근무에 나선 어느 날, 두 사람은 폐업한 호텔 ‘더 팰리스’에 침입 경보가 울렸다는 무전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다. 자정이 넘은 시각, 거대한 규모만큼이나 불이 다 꺼져 스산한 건물에 도착한 두 사람은 현관에 쓰러진 경비원을 발견하고 상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한다. 둔기에 얻어 맞아 정신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그를 뒤로하고 내부로 들어가던 에이든 형사는 소리 없이 달아나는 범인의 뒷모습을 발견하고 급히 뒤쫓지만 정체를 모를 범인은 3층에서 비상문을 통해 빠져나간 후였다. 그런데 텅 빈 호텔 4층에 문이 열린 객실이 눈에 띄고, 에이든과 피터는 그 안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다. 한 남자가 죽어 있었는데, 얼굴이 온통 미소로 가득했다.

더 이상한 것은 죽은 남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단서가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옷은 상표가 전부 제거되어 있고 치아까지 형태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갈아버린 상태였다. 심지어 지문을 알 수 없도록 손가락 끝이 다른 것으로 대체된 끔찍한 몰골이었다. 혼란에 빠진 에이든과 경찰은 팰리스 호텔의 주변 인물들을 탐색하며 달아난 범인과 옷의 얼굴로 목숨을 잃은 남자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 다음 날 정신을 차린 경비원은 3층에서 누군가 다투는 소리가 들려 계단을 올라가던 중이었다는 말과 함께 호텔을 소유한 부부가 곧 소유권을 다른 곳에 넘길 계획이었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에이든은 30년 넘게 팰리스 호텔을 운영했던 집안의 딸이 남편과 함께 호텔을 공동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얼마 전 호텔을 팔아서 돈을 절반으로 나누자는 남편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딸의 진술을 확보한다. 그러나 이들 부부를 대신해 호텔을 관리해온 변호사와 그의 남편, 그리고 변호사가 고용한 또 다른 직원까지 어딘가 수상쩍다는 사실을 간파한 에이든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들의 복잡미묘한 관계를 파헤치기 시작한다.

신원미상의 시체가 입고 있던 바지 안쪽에서 누군가 직접 께맨 형검 조각이 하나 발견되면서 마침내 그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한 수사가 진척을 보이는데, 에이든이 이 낯선 남자에게 한 걸음 가까이 갈수록 겨우 지우고 덮어둔 에이든의 어두운 과거를 들추고 묻고 늘어지는 인물이 나타난다. 이상한 화재 사건, 익명의 제보 전화와 함께 살인을 은폐하려는 노골적인 위협과 시도가 이어지고, 에이든은 끈질기게 따라 붙는 과거의 악령과 맞서 싸우며 죽은 자의 정체와 그 뒤에 서 있는 탐욕스러운 인물들의 비밀을 하나하나 벗겨 나간다.

<저자 소개>

조셉 녹스(Joseph Knox)는 8년간 출판 분야에서 도서 판매업에 종사한 조셉 knobbs(Joseph Knobbs)의 필명이다. 맨체스터 딘스게이트, 노팅엄 브리들스미스에 위치한 워터스톤스 지부에서 범죄소설 바이어로 근무하고 있다. 데뷔작인 『SIRENS』로 베스트셀러 작가대열에 이름을 올렸다.

Praise for
THE SMILING MAN
JOSEPH KNOX

"If you liked *Sirens*, you will love *The Smiling Man*. Gritty, noir, and packing a punch from the very first page." - Jane Harper, author of *The Dry*

"*Sirens* was one of the best books published last year and this intense, blackly comic follow-up is just as good. Joseph Knox has conjured up a sense of evil and corruption you can almost smell it." - Jake Kerridge *Sunday Express*

"Imperfect as Aidan Waits is, the Manchester DC is the shining light in a world peopled by the worst kinds of bad people. This is Knox's second Waits book in what holds the promise of a classic series." - *Sunday Times Crime Club*

"Razor-sharp urban noir – very special indeed." - Lee Child

"*Sirens* is a powerhouse of noir. Joseph Knox owns Manchester and paints it in all its grimy colours." - Val McDermid

"If you liked *Sirens*, you will love *The Smiling Man*. Gritty, noir, and packing a punch from the very first page."

"*Sirens* was one of the best books published last year and this intense, blackly comic follow-up is just as good. Joseph Knox has conjured up a sense of evil and corruption you can almost smell it."

"Imperfect as Aidan Waits is, the Manchester DC is the shining light in a world peopled by the worst kinds of bad people. This is Knox's second Waits book in what holds the promise of a classic series."

"Talents such as Knox rarely emerge more than once in a generation. A crime fiction masterpiece"

NON-FICTION

제목 : THE PARANOID OPTIMIST

가제 : 긍정주의자의 집착

저자 : Risto Siilasmaa

출판사: McGraw-Hill

발행일: 2019년 봄

분량 : 280 페이지.

장르 : 경제/경영/리더십



*** 핀란드 판권 계약 체결(경매)**

*** 2012년부터 노키아(Nokia)의 대대적인 혁신과 기업 쇠신을 이끈 CEO가 직접 전하는 리더의 역할,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위험 징후를 포착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것들**

2000년대 초반 해도 도요타나 월트디즈니, 맥도날드보다 브랜드 가치가 더 높았던 핀란드 기업 노키아는 무너질 틈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굳건한 기업으로 여겨졌지만 2012년 수익이 무려 90 퍼센트 이상 폭락하는 엄청난 위기를 겪었다. 사람들은 노키아도 모토로라나 블랙베리처럼 휴대전화 시장을 화려하게 장식한 1세대 주자로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 확신했고, 여러모로 그 예측은 분명해 보였다. 하지만 3년만에 노키아는 보란 듯이 재기한다. 수익은 20배 이상 증가하고, 10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탄탄한 회사로 거듭난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핀란드에서 나고 자라 헬싱키 대학교 재학 시절부터 컴퓨터공학에 뛰어든 저자는 노키아가 가장 큰 위기에 몰린 2012년에 회장 자리를 맡아 단시간에 거의 다 허물어진 기업을 예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회사로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쇠신을 단행했다. 그 결과 노키아는 드롭박스, 샤오미 같은 신흥 스타트업보다도 더 빠른 성장세로 돌아설 수 있었다.

저자는 겨우 마흔두 살의 나이에 미래가 보이지 않던 회사를 책임지고 이끌어야 했던 암울했던 상황에서 택한 전략과 실행 과정을 이 책에서 상세히 보여준다. 너무나 확고했던 성공의 맛에 젖어 뻘히 눈 앞에 펼쳐진 위기의 징후와 컷가를 계속 맴도는 경고음을 싹 무시하다 길을 잃은 조직을 다시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자 자신과 회사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 일이었다. 여과 없이 솔직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환경, 현 상황을 미화하거나 감정적으로 대하는 대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살아 남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생각이든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가적 리더십’이 저자가 찾은 해답이다. 저자는 노키아의 커다란 변화에서 습득한 변화 관리의 기술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조직이 평형을 유지하고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변화하되 주변의 변화에 휩쓸리지 않는 것, 이것이 저자가 전하는 기업 생존과 쇠신의 핵심 열쇠다.

조직 구성원은 지위와 상관없이 주인처럼 일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부

터 모든 사람이 책임 의식을 길러야 한다. 사실을 숨기지 않고 포장하지도 말고 편하게 이야기하고, 형식적인 것들을 따지느라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리더가 먼저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신속히 떠올리고 각각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노를 힘껏 저어야 하는 때와 내달리고 싶은 욕구를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을 구분할 줄 아는 눈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과거의 성공이 얼마나 대단했든, 그것 하나가 미래를 다 만들어줄 거라고 확신하면 안 된다. 저자는 이와 같은 항목을 '기업가적 리더십'의 필수 요소로 소개하고, 노키아의 위기와 극복 과정을 예로 들어 그 의미와 실천 방법을 설명한다.

노키아의 극적 쇄신에 관한 흥미로운 뒷이야기와 더불어 기업가가 잊지 말아야 하고 반드시 습득해야 할 지식과 가치를 담백하게 전하는 알찬 경영서다.

<목차>

1부. 성공은 사이렌의 노랫소리

1장. 광채의 속을 들여다볼 것: 변화를 알리는 다섯 가지 경고음

2장. “헬싱키, 문제가 생겼다”: 진실은 별할 것이 아니라 요구해야 하는 것

2부. 기업가적 리더십: 변화를 위한 필수 도구

3장. “불타는 플랫폼에서 뛰어내리기”: 신뢰의 발판부터 마련해야 미래도 있다

4장. 위기를 책임지고 해결하는 일: “쇄신의 8대 규칙”- 개인과 회사 모두에 적용하라

5장. 플랜 B, 그리고 플랜 C와 D: 대안을 최대한 고민한 시나리오 기반 사고의 힘

6장. 재난을 생명줄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바닥나면 한 번 더 해볼 것

3부. 미래의 창조: 회복력과 재생이라는 씨앗

7장. 세상을 바꾼 3주: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때를 포착할 것

8장. 두 가지 세계를 리드하는 일: 단결 의식, 최악의 불확실성도 관리할 수 있는 탄탄한 습관

9장. 새로운 노키아의 탄생: 큰 꿈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담대해지는 법

10장. 깨우침을 성공으로: 변화를 위한 자신만의 규칙에 당당해질 것

<저자 소개>

리스트 실라즈마(Risto Siilasmaa)는 2012년에 노키아 회장을, 2013년과 2013년에는 CEO를 맡아 회사 재건을 이끌었다. 리더십 컨퍼런스, 기술 협의회 등 기업가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에 초대되어 강연을 해 왔다.

제목 : THE QUANTUM LEADER

가제 : 쿼텀 리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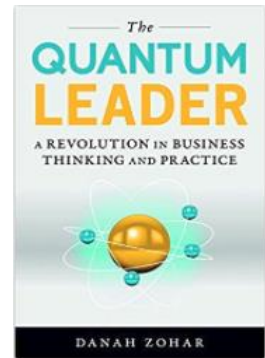
저자 : Danah Zohar

출판사: Prometheus Books

발행일: 2016년 9월 13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경제/경영



* 중국 판권 계약 체결

* “비즈니스 리더들이 전통적인 지위 계층과 오직 돈 하나에만 집중하는 방식(뉴턴 식 모형)에서 벗어나 변화에 대처하고 탈중심화를 이루고 윤리에 집중할 것을 경고한다.”- 「퍼블리셔스 위클리」

빠르게 발전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새롭게 바뀌는 기술 속에서 ‘혁신’과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기업 생존에 필수 요소가 되었다. 조직을 책임지고 이끄는 리더라면 예측하기 힘든 외부의 힘에 대처해야 하고, 영원히 굳건할 줄 알았던 기존의 방식, 문화를 모두 바꾸어야 한다. 이 문제는 산업 분야나 기업의 규모, 리더십의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리더가 맞닥뜨린 숙제가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리더들이 ‘그렇다면 어떻게?’라는 물음에 속 시원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에 매료되어 물리학을 공부하고 MIT에서 물리와 철학을 함께 전공하면서 복잡한 세상을 양자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온 독특한 이력의 저자는 이 세계관을 비즈니스 분야에도 접목시켜 새로운 리더십의 원칙을 제시한다. 복잡한 시스템이 정해진 대로 굴러가는 단순한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뉴턴 식 사고 방식이 오랜 세월 남긴 폐해를 지적하고, 이와 정반대되는 양자역학의 원칙을 비즈니스에 적용하여 불확실성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창의성을 강조한 특별한 경영 모형을 소개한 책이다.

과학적인 발견을 사회과학에 접목시켜 일종의 메타포로 활용한 역사는 16세기에 처음 등장한 기계적 물리학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아이작 뉴턴이 밝힌 세 가지 운동 법칙은 과학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이후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구 문화 전체의 토대가 되었다. 프로이트의 심리학, 존 로크와 존 스튜어트 밀이 제시한 정치 원리, 애덤 스미스의 자본주의 철학, 어거스트 콩트의 사회학, 프레더릭 테일러가 제시한 과학적인 경영 방식, 그리고 과학의 논리적 분석 방법을 철학에 적용하는 논리 실증주의까지, 모두 뉴턴의 사고가 의식적인 바탕이 되어 나온 결과물이다. 심지어 현대 신경과학과 인간의 마음을 해석하려는 컴퓨터 모형에 적용되는 인지과학도 같은 선상에 있다. 뉴턴의 운동원칙을 비즈니스에 결합시킨 사고 체계에서는 기업과 시장을 기계 장치로 보고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단순한 시스템으로 가정한다. 위기(고장)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제거하고 평형 상태를 유지하면 안정적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고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저자는 이와 같은 생각이 2008년 전 세계를 덮친 경제 위기에서 선명하게 입증된 것처럼 매우 위험하고 비현실적이며 증기 엔진처럼 너무나 시대착오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지

적한다. 예측 불가능한 변화가 줄을 잇는 현실에서 ‘늘 하던 대로 보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는 경영 방식은 조직을 고인 물로 썩히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저자는 양자 물리학과 혼돈 이론, 복잡성 과학에서 새로운 해답을 제시한다. 복합적이고 모든 구성요소가 서로 강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 개별적인 대화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조직에서 비로소 창의적이고 가장 발전적인 해결책이 도출된다고 설명하면서, 저자는 조직을 이와 같이 이끄는 리더를 ‘퀀텀 리더’라 칭한다. 최악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최고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혁신과 해묵은 규칙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한 이유를 다소 까다롭게 느껴지는 양자역학의 원리 속에서 찾아 실제 비즈니스 사례와 함께 제시한 내용들이 매우 흥미롭다. 어차피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현대 기업 환경 속에서 그 혼란 혹은 극심한 변화를 아예 창의성의 원동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그 필요성을 상세히 제시한 새로운 시각의 경영서다.

<목차>

머리말. 비즈니스에 왜 혁신이 필요할까

1부. 비즈니스와 양자역학적 사고

- 1장. 양자의 시대에 들어서다
- 2장.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3단계
- 3장. 사고의 세 가지 종류: 뇌의 재연결
- 4장. 양자역학적 사고의 8대 원칙과 리더십
- 5장. 고틀머리에서

2부. 조직 구조와 리더십에 관한 세 가지 모델

- 6장. 서구 모형: 뉴턴 식 자아와 조직
- 7장. 동양 모형: 네트워크로 구성된 자아와 조직
- 8장. 양자 모형: 동서양을 하나로
- 9장. 양자 모형의 사례연구: 중국 하이얼 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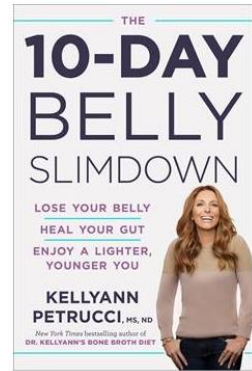
3부. 양자 시스템/전략 역동성의 실제 적용

(이하 생략, 총 14장과 결론으로 구성)

<저자 소개>

다나 조하르(Danah Zohar)는 경영 코치이자 저술가로 활동해 왔다. MIT에서 물리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철학, 종교, 심리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유네스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등 세계 여러 국가와 국제단체가 개최한 리더십 포럼, 강연도 다수 참가했다. 저서로는 『Spiritual Capital』, 『The Ultimate Intelligence』 등이 있다.

제목 : 10-DAY BELLY SLIMDOWN
가제 : 뱃살 굿바이 10일 다이어트
저자 : Kellyann Petrucci
출판사: Harmony
발행일: 2018년 2월 20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건강/다이어트



- * 대만, 베트남 판권 계약 체결 / 아마존 베스트셀러 14위
- * “날씬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배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내가 신뢰하는 저자가 여러분에게 그 방법을 정확히 알려줄 것이다.”- 의학박사 메멧 오즈(Mehmet Oz)
- * “속임수나 다름없는 혼한 다이어트 가 아니다. 초과된 체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영원히 없앨 수 있는 강력한 식생활 전략이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Eat Fat, Get Thin』의 저자, 의학박사 마크 하이먼

‘뺄 육수 다이어트’ 법을 소개하여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를 만큼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던 체중관리 전문가가 10일 만에 뱃살 10 파운드(4.5 킬로그램)를 뺄 수 있는 놀라운 전략을 또한 소개한다. 뱃살이 두툼해서 늘 가리느라 입고 싶은 옷도 마음대로 못 입고 자신감도 크게 떨어진 사람들을 위해 그 짐 더미 같은 살을 단기간에 없애고, 마음대로 쌓이지 않도록 통제하는 저자의 다이어트 전략은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지만, 할리우드에서 그 누구보다 몸매 관리에 힘쓰는 유명 연예인들의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이미 충분히 검증된 방법이라고 저자는 자신 있게 소개한다. 단순히 보기 좋은 몸매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화기 건강을 개선해서 더 활기차게 살 수 있는 저자의 10일짜리 뱃살 제거 계획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식사 간격 조정이다. ‘미니 단식’이라는 별칭처럼 한 끼 식사 이후 다음 끼니까지 시간을 일곱 시간으로 늘리는 것이다. 다음 식사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는 것만으로 전체적인 체지방을 연소시키고 빠진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두 번째는 뺄 육수를 식단에 포함시켜서 갑자기 솟구치는 식욕을 잠재우는 것이다. 이미 저자의 앞선 저서에서 잘 알려졌듯이 콜라겐 함량이 높은 뺄 육수를 다이어트에 활용하면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불편했던 관절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도 덤으로 얻을 수 있다. 세 번째는 특별한 셰이크와 수퍼푸드를 식단에 추가하는 것이다. 뺄 육수와 함께 콜라겐을 공급할 수 있는 재료들로 셰이크를 만들고, 위와 장의 소화 능력을 강화하고 더부룩한 느낌을 없애는 동시에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퍼푸드를 골고루 포함시킨다.

저자는 이와 같은 ‘3중 펀치’ 전략으로 유명인사들뿐만 아니라 체중 관리를 위해 찾아온 사람들의 배 주변 지방이 최대 6 킬로그램까지 감소한 사례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무조건 쪼쪼 굶거나 한 가지 음식에만 의존해서 다이어트 기간을 고통의 시간으로 만드는 대신, 과학적으로 뒷받

침된 원리를 적용하여 소화기에 음식이 들어가는 간격을 조정하고 허기진 느낌을 막무가내로 견디는 대신 배고픈 감각을 약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서 자연스럽게 배 돌레의 과도한 지방이 사라지도록 하는 방법들이 알차게 담겨 있다.

복부 지방은 지방 세포 하나에 저장된 지방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 세포 자체가 똥똥해지면서 늘어간다. 이는 단순히 몸매가 안 예쁜 문제가 아니라 염증 반응과 동맥 경화를 유도하며 더 나아가 당뇨와 콜레스테롤로 인한 문제, 면역기능 약화로도 이어진다. 바꾸어 말하면 뱃살을 없애면 몸매가 예뻐지고 자신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건강’이라는, 더 소중한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기나긴 다이어트에 지친 사람들에게 딱 10일 만에 뱃살을 4 킬로그램 이상 뺄 수 있는 저자의 전략은 부담 없이 시도해볼 만한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다.

<목차>

서문 / 머리말: 뱃살에 작별인사를!

1부. 뱃살 제거 10일 다이어트의 기본 원리

1. 지금부터 여러분의 뱃살을 날려버릴 겁니다... 그것도 신속하게
2. 나의 10일 다이어트를 여러분의 뱃살을 빼는 전략으로
3. 주의사항: 예상 결과

2부. 뱃살을 날려버릴 뼈 국물과 셰이크, 식단

4. 미리 조금만 준비하면 아주 쉬워진다
5. 뼈 육수로 화려한 출발을
6. 신성한 재료로 양념을
7. 지방 태우는 셰이크로 마무리를
8. ‘슬림’식판으로 더욱 강력하게

3부. 뱃살을 날려버릴 세 가지 추가 ‘동력’ (9-11장)

4부. 뱃살에 영원한 안녕을! (12-13장)

<저자 소개>

켈리안 페트루치(Kellyann Petrucci)는 공인 자연요법 의사이자 영양 컨설턴트로 LA에서 유명 인사들의 담당 의사로도 활동해 왔다. 저서 『Bone Broth Diet』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닥터 오즈’, ‘더 닥터스’, ‘굿모닝 아메리카’ 등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다수 출연했다.

제목 :VISUALIZING THE BEATLES

가제 :눈으로 보는 비틀스: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밴드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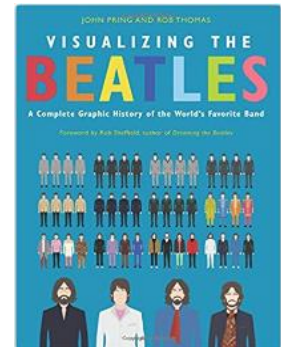
저자 : John Pring, Rob Thomas

출판사: Dey Street Books

발행일: 2018년 5월 1일

분량 :288 페이지

장르 :예술/대중음악



★ 스페인, 독일 판권 계약 체결

★ “마법 같은 역사 투어”- 「가디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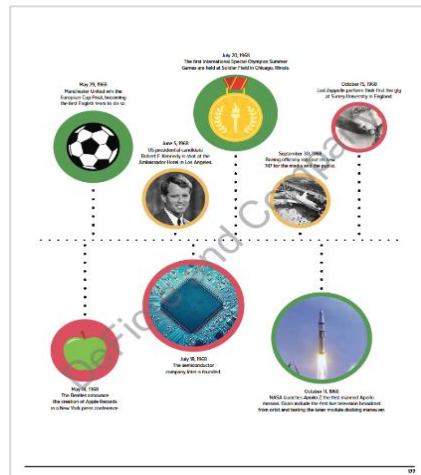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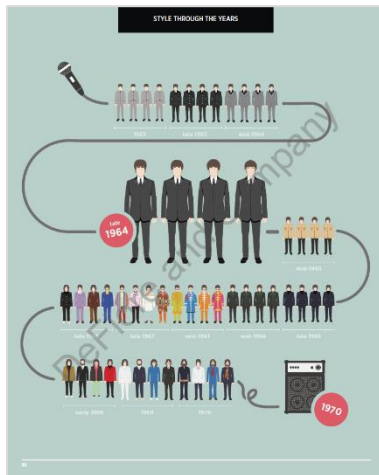
★ “애정이 듬뿍 담긴 책. 읽기 힘들 정도로 상세하다. 멋진 일러스트와 함께 비틀즈의 모든 앨범이
원형 그대로 소개된다. 진정한 비틀스 팬이라면 반드시 소장하고 싶을 만한 책이다.”- 밴드
Move, ELO, Black Sabbath 출신 드러머, 음악가 베브 베번(Bev Bevan)

아무리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도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 열기는 사그라지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한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밴드가 있다. 해체된 지 거의 반 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밴드라는 이름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비틀스다. 영국 리버풀
출신의 청년 네 사람이 서로를 만나고, 좋아하는 음악을 하고, 자신들의 꿈을 이룬 동시에
세상을 바꿔 놓고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기까지 그 놀라운 여정을 그래픽 디자이너인 두 저자는
기존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상세히 소개한다. 말 그대로 비틀스의 모든 것을 분석하여
인포그래픽으로 만든 이 책은 비틀스의 첫 번째 앨범부터 마지막 앨범까지 모든 노래와 가사, 각
노래가 탄생한 배경, 연주에 사용된 악기, 앨범 커버 디자인, 발매 이후 음반 차트와 판매량까지
총망라하여 감각적인 일러스트와 함께 제시한다. 여기에 비틀스 네 멤버의 시기별 헤어스타일과
패션, 특히 선호했던 악기, 투어 날짜와 일정, 방문했던 도시를 비롯해 폴 맥카트니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까지 그림과 간략한 설명으로 담아냈다.

비틀스 멤버 모두 시각 예술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는 사실도 이 책과 맞닿는 부분이다. 존
레논이 휘갈기듯 그려낸 작품들, 영화에 출연도 하고 직접 연출하기도 했던 링고 스타를 포함한
네 사람 모두 자신들이 하는 음악에만 몰두하지 않고 늘 눈은 세상을 바라보고, 눈에 들어온
세상을 노래로 포착하기 위해 노력했다. 두 저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비틀스를 바라본다. 네
사람이 나고 자란 리버풀 지역의 지도와 풍경, 앨범 커버 디자인에 숨겨진 다양한 메시지들,
록에 미친 궤도화한 풋내기에서 혁신적인 실험도 마다하지 않는 진정한 아티스트가 되기까지
노래의 변천사에 이르는 그 과정들이 시간 순서대로 낱알이 소개된다. 두 저자 역시 한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고 그래픽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작곡과 연주, 스케치, 사진에도 열정을
발휘해온 만큼 다양한 예술 활동에서 비롯되는 창의력과 실험의 중요성, 독창성을 간파하고,

이를 토대로 비틀스의 역사를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닌 훨씬 생동감 있는 기록으로 만들었다.

비틀스는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그들이 남긴 음악 하나하나에는 무수한 데이터가 담겨 있다고 두 저자는 이야기한다. 그 데이터에 담긴 패턴과 변화, 이례적인 개성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비틀스의 정신과 60년대의 독특한 시대 분위기를 생생하게 담아낸 특별한 전기이다.



<목차>

서문 / 머리말

앨범

플리즈 플리즈 미(Please Please Me)

위드 더 비틀스(With the Beatles)

하드 데이즈 나이트(A Hard Days Night)

비틀스 포 세일(Beatles for Sale)

(이하 생략, Let it Be까지 총 13장)

남겨진 유산

<저자 소개>

존 프링(John Pring)과 롭 토머스(Rob Thomas)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구글과 가디언, 하드록 카페, 사치 앤 사치 등 다양한 기업에 인포그래픽을 제공해 왔다.

제목 : 21 RITUALS TO CHANGE YOUR LIFE

가제 : 인생을 바꾸는 스물한 가지 습관

저자 : Theresa Cheung

출판사: Watkins Publishing

발행일: 2017년 3월 16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7개 언어로 번역, 출간 이후 영국과 미국에서 5,000부 이상 판매

★ 선데이 타임스 베스트셀러(총 2회) 작가이자 소셜 미디어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는 저자의 쉽고 간단하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조언 (페이스북 팔로워 12,000명 이상)

생각과 행동, 둘 중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줄까? 속상한 일이 생겨서 마음이 힘들 때면 ‘잘게 생각해라’고들 하고, 불확실한 일을 걱정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서로 조언해주곤 하지만 말처럼 쉽게 되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뭔가 결정적인 한 방, 꼬이기만 하고 뜻대로 안 되고 우울한 인생을 확 바꿔줄 큰 사건이 벌어지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취직 혹은 이직을 하면, 결혼을 하면, 꼭 가고 싶었던 곳에 여행을 다녀오면, 성적이 좋아지면, 월급이 오르면 삶이 엄청나게 바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사실 잘 알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는 이 책에서 매일매일, 아침과 낮, 저녁마다 고박고박 하는 일들에 답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우리의 삶은 커다란 사건이나 중대한 결정, 머릿속 생각, 남의 의견이 아니라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에 일상적으로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 바로 그 순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다. 건강과 행복, 모두의 목표인 이 두 가지를 얻기 위해서는 생각이 아닌, ‘행동’으로 그 목표에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저자는 하루 세 번, 더 나은 삶을 위해 시간대별로 실천할 ‘의식’을 소개한다. 일곱 가지씩 하루에 총 스물한 가지 의식을 최소 21일 동안 실천하면 확 달라진 삶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저자 스스로도 체험했고 모두 과학적으로 유용성이 입증된 내용들이다. 숱한 자기계발서나 훌륭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전하는 조언들이 웬지 자신에게 ‘먹히지’ 않는다고 느낄 때, 저자는 그 이유가 귀중한 조언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습관으로 만드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습관은 딱히 심혈을 기울여 생각하고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행동이고, 마음이 담기지 않은 행동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 이에 저자는 ‘의식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특정한 행동을 의식화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듯 그 행동에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고 에너지를 담아 진심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부터 들지 말고 스트레칭 하기, 거울보고 웃기, 상대방의 얼굴만 쳐다보지 말고 정말로 귀를 기울여볼 것 등 전혀 부담스럽지도 않고 많은 시간이나 노력을

요하지도 않는 간단한 행동을 의식화하면, 너무 쉽고 당연해서 중요한 줄도 몰랐던 이런 행동들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실제로 지난 수십 년간 신경학과 심리학 분야에서 생각보다 행동에 더 큰 영향력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의미 있는 변화가 오래 지속되려면 꾸준한 행동이 필요하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아주 쉬운 행동을 반복하되 마음을 담아 반복하는 것, 어쩌면 아주 간단하지만 늘 이유 없이 시간에 쫓기고 마음만 바쁜 우리에게 이보다 더 필요한 조언은 없을지도 모른다.

<목차>

머리말: 21일

1부. 결심으로 깨우는 하루 - 삶을 변화시키는 아침 의식 7

의식 1: 더 일찍 일어나기

의식 2: 전화기부터 보지 말고 스트레칭 하기

의식 3: 스스로에 간단한 질문 던지기

의식 4: 그냥 숨 쉬기

의식 5: 거울 보면서 웃기

의식 6: 결승선 떠올리기

의식 7: 조정하기

아침 체크리스트

2부. 목표가 있는 생활 - 삶을 변화시키는 낮 의식 7

의식 8: 한 가지를 깔끔하게 정리할 것

의식 9: 자기 컵은 자기가 채우기

의식 10: 내버려두기 (이하 생략)

3부. 만족하며 잠자리로 - 삶을 변화시키는 저녁 의식 7

(이하 생략)

<저자 소개>

테레사 청(Theresa Cheung)은 킹스 칼리지를 졸업하고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신학과 영문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Element Encyclopedias of Dreams』, 『Birthdays and The Psychic World』 등 몸과 마음, 정신의 관계를 다룬 저서를 다수 발표했고 25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됐다.

제목 : SEE YOU AGAIN IN PYONGYANG

가제 : 평양에서 다시 만나요

저자 : Travis Jeppesen

출판사: Hachette Books

발행일: 2018년 5월 29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인문/여행에세이



*** 미국인 최초로 북한 대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저자가 전하는 북한과 평양의 이야기, 문화와 심리, 선전 활동과 북한 사람들의 생활**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우리나라와 북한의 정상회담이 확정되면서 연일 북한과의 순조로운 대화와 문화 교류에 관한 이야기가 뉴스 앞머리에 등장하고 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국제 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핵실험을 지속하던 북한은 일상 생활 중에도 순간순간 전쟁 가능성을 떠올리게 하는 두려운 존재였는데, 동계 올림픽 기간에 우리 앞에 나타난 북한 사람들은 정치적인 해석이 어떠하든, 그런 우려가 무색할 만큼 밝고 명랑하고 다정했다. 우리와 같은 민족이지만 너무나도 다른 정치 체제와 문화, 신념 체계 속에서 살아가는 북한은 과연 어떤 곳일까? 궁금하면 직접 가서 보고 듣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북한은 그마저도 불가능하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른이 된 이후 늘 다른 나라를 떠돌며 어디에도 묶여 있지 않는 삶을 추구해온 저자는 이 폐쇄된 국가, 세계 그 어떤 나라와도 다른 나라에 대한 큰 호기심 하나로 그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다. 외국인 관광객의 신분으로 2012년 처음 북한을 찾아간 것을 시작으로 수 차례 그 높은 경계를 너머 평양으로 향했던 저자는 북한의 한 대학에서 역사상 최초로 한국어 강좌에 외국인을 받아들인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신청했다. 그리하여 길어보야 10여 일로 끝났던 북한 방문은 한 달 내내 그곳에 학생 신분으로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저자는 우리를 비롯해 전 세계가 호기심의 눈초리를 던지는 바로 그 곳, 북한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이 책에서 전한다. 정치적인 목적 없이 글을 쓰고 예술 작품을 비평하는 것이 직업인 저자는 공산주의가 실패로 끝난 프라하와 독일에서 오래 머물면서 자유민주주의와는 전혀 다른 신념 체계가 남긴 유산에 큰 관심을 기울여 왔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옳다고 여기는 가치와 전혀 다른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국가에 매료된 저자에게 북한은 그 호기심을 가장 강렬하게 자극하는 곳이자, 가장 정확한 해답을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그리 긴 시간은 아니지만 평양에서 살고, 제한적이거나 곳곳을 둘러보면서 본 북한의 문화, 분위기, 일반인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는 언론이나 뉴스를 장식한 자극적인 기사와 자료들에서 느껴온 것과 사뭇 다르다.

저자는 총 다섯 번에 걸친 북한 방문에서 만난 다양한 계층의 사람과 북한의 과거, 그리고 현

체제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고, 탈북자들과 북한에 관한 기존의 책과 자료를 거의 모두 섭렵하며 최대한 객관적인 눈으로 세계에서 ‘가장 낯설고 이상한’ 나라를 들여다보았다고 전한다. 모두가 기계처럼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세뇌되어 차갑고 딱딱하기만 하리란 예상과 달리 흥겨운 노래가 흐르고 ‘적국’이라 여기는 미국 사람인 자신도 따뜻하게 맞아준 사람들, 외국인은 단지 돈 되는 투자자로만 여기고 투자를 얻기 위해 걸만 번지르르하게 꾸민 것일지도 모른다는 기존의 편견을 종식시킨 수많은 경험과 사례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핵 전쟁도 마다하지 않는 희한한 정치 지도자와 그를 떠받들 듯 로봇처럼 모시는 사람들의 세계, 북한이 결코 그런 단정적인 묘사와 고정관념에 국한된 곳이 아님을 보여주는 특별한 여행기이자 회고록이다.

<목차>

작가의 글 / 서문

- 1부. 잊혀진 도시의 꿈
- 2부. “세계 최악의 국가”
- 3부. 노어코리얼리즘(Norkorealism)
- 4부. 우리, 그리고 그들
- 5부. 잔혹 전시회
- 6부. 승리의 날
- 7부. 우정의 집
- 8부. 병풍
- 9부. 화해
- 맺음말

<저자 소개>

트래비스 켈슨(Travis Jeppesen)은 소설가이자 시인, 아티스트, 비평가로 활동해 왔다. 골드스미스 대학교 미술 강사로도 활동했으며 영국 왕립예술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객원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소설가 대니스 쿠퍼가 편집을 맡고 있는 ‘Little House on the Bowery’를 통해 발표된 데뷔작 『Victims』과 『The Suiciders』, 『Dicklung & Others』 등이 있다.